

‘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’ 제50차 포럼

“제대로 된 역사관 정립이 필요”

이건혁 기자(ghlee@skyedaily.com)

기사입력 2022-12-23 10:55:23



▲20일 매한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‘공정과 상식을 위한 국민연합’이 제 50차 포럼을 진행했다. [사진=공정과 상식을 위한 국민연합 제공]

‘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’이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(전 국제형사재판소장)를 초청한 가운데 포럼을 진행했다. 100여 명의 회원 및 인사가 참석해 ‘역사 바로세우기’를 주제로 열띤 토론했다.

20일 오후 3시 매한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국민연합의 제50차 포럼이 열렸다. 송 교수는 국민연합이 무너진 원칙을 바로잡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높게 평가했다.

이어 국제 사회가 최근 세계화 물결이 주춤해지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“이러한 심각한 도전은 한국의 안보상황과 민주주의 정치체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”고 경각심을 일으켰다.



▲송상헌 서울대 명예교수는 강연을 통해 사회 분야에서의 개혁과 ‘역사바로세우기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 [사진=공정과 상식을 위한 국민연합 제공]

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“지난 정부의 말과 행동으로 국민 분열이 더욱 깊어졌고 국회에서도 극도의 여야 대립으로 무력화되고 있다”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.

송 교수는 이런 상황에 대해 “우리 사회가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노동개혁·연금개혁·공공개혁을 통한 사회통합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”며 “성장과 분배의 두 바퀴가 조화롭게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”고 대안을 제시했다. 송 교수에 따르면 노동·연금·교육개혁으로 궤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.

‘역사바로세우기운동’의 중요성도 강조됐다. 송 교수는 “우리의 자랑스러운 과거,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한 현재, 올바른 미래 역사의 계승을 위해 제대로 된 역사관의 정립이 필요하다”고 주장했다.

송 교수는 “정의·평화·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국제사회의 질서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세계의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”며 강연을 마무리했다.

한편 제51차 포럼은 김수일 전 동티모르 대사의 ‘윤석열정부의 동남아 정책 기조’ 발제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내년 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.

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 스카이드aily에 있습니다.

출력하기